하나님께서 하신 말씀

(이사야 66:1-6)

하나님은 선지자들을 통해 말씀을 주심으로 시대를 이끌어 가십니다. 항상 말씀을 주시고, 그 말씀은 그대로 성취되었습니다. 그 흐름을 따라간 자들은 시대적인 인생을 살았습니다. 이렇게 본다면 우리 인생은 간단합니다. 하나님께 말씀을 받고, 말씀을 따라가면 되는 것입니다. 복음은 모든 저주를 축복으로 바꾸는 권세가 있습니다. 주님께서 이것을 위하여 피 흘리시고, 죽으셨기 때문입니다. 이 언약으로 도전하고 사는 자는 모든 문제가 축복으로 바뀝니다. 이에 대한 예시는 성경에도, 우리 삶에도 있습니다. 그래서 복음에 답이 났다는 것은 모든 문제가 축복이라는 눈을 가진 것입니다. 그래서 모든 문제는 또 다른 축복을 주기 위해서 일부러 주신 것이라고 보는 눈이 복음에 답 난 자에게 있습니다. 예레미야 33:2 우리가 잘 아는 말씀입니다. '일을 행하시는 여호와, 그것을 만들며, 성취하시는 여호와'. 일을 만드신다고 했습니다. 상황을 만든다는 뜻입니다. 하나님이 상황을 만드시면 새로운 사건이 생깁니다. 하나님은 우릴 항상 축복하길 원하십니다. 일이 일어나기 전에 기도로 누리고 있으면 일어나는 모든 일이 축복임을 미리 알고 있게 됩니다. 우리는 때로 일이 일어나면 큰일이 났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기도, 복음을 아는 자에겐 새로운 응답과 새로운 축복이 진행됨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전도에 눈이 열리면 현장이 보이게 됩니다. 그러면 사람도 보이게 됩니다. 준비된 한 사람을 만나게 되고, 때로는 그 뒤에 한 가정을 만나기도 합니다. 그때 이 사람과 그 가정을 위하여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하는지 보이게 됩니다. 눈이 열리지 않으면 무엇을 해야 하는지 생각도 나오지 않게 됩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복음 전하면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복음을 어떤 과정을 통해 전달하고, 어떻게 그에게 복음이 생명으로 다가올까를 생각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모든 것을 말씀으로 하시기 때문에 말씀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어느 날 들어온 말씀이 언약이 되고, 인생의 그림이 되면 정복이 나타납니다. 성경의 기록에 의하면 모두 정복하게 됩니다. 정확한 그림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대로 성취되는 것입니다. 인생이나 문제에 눌리는 게 하나님의 뜻이 아닙니다. 오늘도 우리는 이런 말씀 한마디를 받는 날이 되기를 바랍니다.

1.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

1절에 하나님은 '하늘은 나의 보좌요, 땅은 나의 발판이니 너희가 나를 위하여 무슨 집을 지으랴. 내가 안식할 처소가 어디랴'라고 하셨습니다. 본래부터 하나님의 말씀에는 인간이 대꾸를 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한마디가 결론이기 때문입니다. 2절에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 손이 이 모든 것을 지었으므로 그들이 생겼느니라'고 했습니다. 그전에는 아무것도 없었다는 의미입니다. 1, 2절을 보면 하나님은 인간의 도움을 필요로 하지 않으십니다. 그렇게 2절 그다음에 인간이 무엇을 하기 원하는지 적어놓았습니다. '무릇 마음이 가난하고, 심령에 통회하며, 내 말을 듣고 떠는 자, 그 사람은 내가 돌보려니와'. 하나님의 돌보심을 받는 비밀을 알려주셨습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다는 다른 말씀도 있습니다. 심령이 부자인 바리새인은 하나님의 말씀을 받지 않습니다. 그리고, 떠는 마음으로 그 말씀을 지켜라, 그리하면 너를 돌보겠다 하셨습니다. 3절에 '소를 잡아 드리는 것은 살인함과 다름이 없이 하고, 어린 양으로 제사 드리는 것은 개의 목을 꺾음과 다름이 없이 하며'라고 했습니다. 당시 이스라엘의 예배 드리는 모습입니다. '분향하는 것은 우상을 찬송함과 다름이 없이 행하는 그들은 자기의 길을 택하며, 그들의 마음은 가증한 것을 기뻐한즉.' 4절에 '나 또한 유혹을 그들에게 택하여 주며, 그들이 무서워하는 것을 그들에게 임하게 하리니' - 만약 예배를 이렇게 드리면 사탄 통해 유혹을 선택하게 하여 두려워하는 것을 주겠다고 하셨습니다. 모든 결정권이 하나님께 있기 때문입니다. 사탄의 눈이 어두워 모든 결정권이 하나님께 있음을 전혀 모르는 것입니다. 사무엘상 3:14에 보면 '엘리의 집에 대하여 맹세하기를 엘리 집의 죄악은 제물로나 예물로나 영원히 속죄함을 받지 못하리라'고 하셨습니다. 우리는 우리가 드리는 예배를 다시 한번 돌아봐야 합니다. 그래서 4절 중간에 구체적으로 표현했습니다. '내가 불러도 대답하는 자가 없으며, 내가 말하여도 그들이 듣지 않고, 오직 나의 목전에서 악을 행하며, 내가 기뻐하지 아니하는 것을 택하였음이라 하시니라'고 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부르시면 대답해야 합니다. 다른 사람이 하지 않으면 나라도 해야 한다는 자세가 있어야 합니다. 그냥 말씀을 듣고, 나 혼자라도 따라가면 그것이 세계 복음화입니다. 5절에는 주님의 부탁의 말씀과 약속이 들어있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으로 떠는 자들아, 그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4절에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자가 없다고 했는데, 그 말씀을 들으라는 것입니다. 너무나 당연한 것입니다. 이것보다 더 큰 축복은 사실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말씀으로 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말씀은 반드시 성취됩니다. 그 말씀을 막을 자는 한 명도 없습니다. 세상에는 막히는 것이 많으나 절대로 막히지 않고, 아무도 막지 못하는 것은 단 하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러면 결론은 당연합니다. 말씀을 잡은 자는 사는 것입니다. 말씀을 놓치면 아무리 훌륭해도 당할 수밖에 없습니다. 아무 능력이 없고, 힘이 없어도 하나님이 주신 말씀 한마디 잡고 사는 자에게는 반드시 정복하는 결과가 나옵니다. 틀림없습니다. 중간에 가다가 어려운 일이 생길 수도 있습니다. 어려움이 말씀을 막을 수 없습니다. 누군가 방해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 어떤 사람도 천지를 창조한 이 말씀을 막을 수 없습니다. 우리는 말씀을 받으면 많은 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러나, 하나만 깨달아도 충분합니다. 말씀은 아무도 막지 못한다, 이것이면 인생은 끝난다, 세상 모든 것 정복한다, 이 언약의 말씀을 잡으면 아무도 내 앞으로 막을 수 없다, 이것이 말씀이다는 것입니다. 수많은 단어가 오늘도 선포될 것이나 다 잊어도 이 사실 하나만 가슴에 들어와 깨달아지고, 눈이 열리면 됩니다. 이것이 깨달아지는 날이 되기를 바랍니다. 5절에 '너희 형제가 너희를 미워하며, 내 이름으로 말미암아 너희를 쫓아내며 이르기를 여호와께서는 영광을 나타내사 너희 기쁨을 우리에게 보이시기를 원하노라 하였으나 그들은 수치를 당하리라' 하셨습니다.

요약하자면 이렇습니다. '하늘은 나의 보좌요, 땅은 내 발을 놓을 발판인데, 너희가 나를 위하여 무엇을 할 수 있겠느냐? 만물도 내

가 만들었으므로 너희 눈에 지금 보이는 것이 아니겠느냐. 그러므로 너희는 심령을 가난하게 하고, 통회하여 내 말을 듣고, 두려워하라. 그러면 내가 너를 영원히 돌 볼 것이다'고 하셨습니다. 그러나, 만일 우리가 하나님의 언약을 배반하고, 성결해야 할 그 예물의 언약의 피를 멸시하면 사탄의 유혹에 걸려 저주를 받게 하고, 우리가 두려워하여 우상을 섬기는 그 두려움이 우리에게 임할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는 악한 마음으로 예배를 드려선 안 됩니다. 우리 중에 그런 자가 있는지는 모르지만, 그렇다고 돌아보지 않아도 되는 건 아닙니다.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내 말을 듣고, 따르면 내가 너희 원수가 수치를 당하게 할 것인즉 이 사실을 잊지 말라는 간곡한 마음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자신을 도와주려고 하지 않아도 되고,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이며, 지금도 모든 것을 다시 만드신다고 하셨습니다. 두려운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을 듣고 따르면 두려워하는 것을 제거하고, 원수가 우리를 쫓아낼지라도 오히려 원수가 수치를 당하게 될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결론적으로 2가지를 말씀하셨습니다. 말씀과 예배입니다. 말씀을 듣고, 따르고, 예배를 바로 드리면 된다는 뜻입니다.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이 내게 들어와 언약이 된다면 그 안의 모든 것을 평생을 통해 누리게 됩니다. 올해 우리가 교회가 잡은 말씀이 예배, 기도, 말씀 운동입니다. 아침, 낮, 밤 24 기도 속에서 우리가 잡은 언약입니다. 예배는 인간의 근본입니다. 거기서 인간에게 필요한 모든 것이 나온다고 하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진정하고, 진실한 마음으로 예배를 드리고, 자세를 갖추면 하나님은 약속하신대로 하겠다고 하셨습니다. 시간을 지키는 것은 당연한 것이나 잘 안 지켜지는 분들도 계십니다. 10-20분만 빨리 오시면 됩니다. 눈으로 보면 버릇이고, 영적으로 보면 사탄에게 속는 것입니다. 시간과 함께 언약을 잡고 와야 합니다. 한 번에 되지 않아도 지속하면 거기서 역사 일어나게 됩니다. 기도로 준비하고, 오면 역사는 반드시 일어납니다. 예배 하나로 끝납니다. 이 결심이 있으면 예배 하나로 끝납니다. 마음에 담고 따라가시길 바랍니다.

이사야 55:2-3 말씀은 여러 번 말씀드렸습니다. '너희는 내 말을 듣고, 또 들으라. 그냥 듣지 말고 귀를 기울여서 들어라. 그리하면 네 영혼이 살 것이다'. 내가 살릴 것이니까. 그러면 눈이 열릴 것이다. 그때 네가 나와 통하게 될 것이고, 그럼 내가 너의 기도를 듣게 된다. 마음이 통하게 되고, 네가 내 사람이 되고, 내가 너와 함께 하며, 너를 지키고, 돌봐주리라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리하면 네 영혼이 살 것이라고 하셨습니다. 이 자세를 유지하고도 정복하지 못할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이유는 성경에 수없이 반복적으로 기록되었기 때문입니다. 해야 하는데, 마음이 안 따라갈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기도를 주셨습니다. 시간을 정하거나 40일 집중 기도를 하는 것도 좋습니다. 우린 반드시 서밋의 작품을 남기고, 영적 황제의 작품을 남기게 될 것입니다.

2. 한 가지만 더

응답을 받는 자에게는 하나님이 전도의 문을 여시고, 복음을 전하고, 그리스도 영접하게 되며, 후속적인 사역도 연결됩니다. 그게 순조롭게 될 때도 있고, 잘 안되어질 때도 있습니다. 잘 안되어질 때 우리의 자세 중 하나입니다. 필수적인 것은 아니지만 주님도 병든 자는 고쳐 주시고, 용서가 필요한 여인에게는 용서도 해주셨습니다. 이런 육신적인 것이 당사자들에겐 너무나 귀하고, 감사한 것이었습니다. 그 마음으로 주님께로 돌아간 자들도 있습니다. 기적과 도우심이 그들의 마음을 여는 데 아주 중요한 역할을 했다는 것을 부인할 순 없습니다. 깨끗이 복음 하나로 끝내고, 다른 것은 돌아보지 않는 자세도 귀하고, 영적인 복음 외에 육신적으로는 무엇이 필요할까 하는 생각도 귀한 일입니다. 대부분 육신적인 문제에 시달리고 있는데, 그들에게 우리가 하는 조그마한 노력은 그들의 마음을 여는 데에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할 수도 있습니다.

우리는 너무나 귀중한 복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제 남은 것은 그들의 마음을 얻는 것입니다. 우리 중에 복음을 몰라서 복음을 전하지 못하는 전도자는 없을 것입니다. 그들의 마음을 열게 하기 위하여 내가 해야 할 일은 무엇일까를 한 번 생각해 보는 시간도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 사람을 위하여 복음 외에 한 가지를 더 할 것이 있다면 그게 무엇일지 생각해 보면 좋겠습니다. 사람마다 다를 것입니다. 하나님께 기도해 보면 됩니다. 그게 무엇일까요, 하나님? 어떻게 하면 이 사람이 하나님 앞에 마음을 열겠습니까? 복음이 가장 중요합니다. 복음 없인 아무것도 할 수 없고, 무슨 노력도 소용없습니다. 성경에 보면 복음을 우리보다 더 정확히 알고 있던 그들도 이 한 가지 더를 했다는 것입니다. 한번 생각해 볼 일입니다. 내게 붙여진 모든 영혼을 절대 놓치지 않겠다는 마음인 것입니다. 양 한 마리 잃지 않은 다윗의 마음이었습니다. 이게 우리 모두의 인생이 되길 바랍니다. 작은 이 생각 하나가 인생을 뒤집었습니다. 하나님은 분명 우리의 마음을 귀하게 보실 것입니다. 이런 하나님의 칭찬을 받는 우리 모두가 되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오늘 하신 말씀이 두 가지입니다. 네게는 내 말씀이 무엇이냐? 네게는 내게 드리는 예배가 무엇이냐? 한 주간 잊지 않고 생각해 보고, 기도하며, 결론 내는 하나님의 사람 되길 기도합니다.